“순천시 신청사 설계 시민 디자인단과 함께해요”

설계건축사와 함께하는 시민참여디자인단 워크숍

“직접 만든 기본계획 대부분 반영되어 의미 있어”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청사건립을 위해 설계건축사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참여 디자인단과 설계공모 당선업체인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신청사 설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하여 남정민 건축가, 시민참여디자인단(단장 정경석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50명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허석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설명, ▲당선작 소개 및 건축가와의 만남, ▲디자인단 토론 및 자유로운 의견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에서는 시민참여 디자인단은 이 직접 만든 기본계획이 설계당선작품으로 대부분 잘 반영되어서 매우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토론과 공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 생태도시 순천시만의 색깔이 담긴 신청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참여디자인단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 활동을 추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시민감리단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동안 시민참여 디자인단 활동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 설계공모 지침 등 미래 100년 신청사 건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도시와 생태, 시민과 공무원,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 활력 넘치는 시민의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신청사 건립 설계를 마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2021농정 업무 협의회 개최

고흥군은 지난 15일 농축업 발전 방안 및 당면 농정 현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및 8개 지역 농·축협장이 한자리에 모여 ‘2021년 고흥군 농정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정 업무 협의회에서는 고흥군과 농협중앙회 고흥군 지부 및 각 지역 농축협과 상호 협력하여 ▲농어민 공익수당(15,234명/91억)의 차질없는 지급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7,325명/15억원) 카드 발급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홍보 및 이율인하 협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41,163톤/33억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12억원) 적기 추진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협의 하였다.

이외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유자 동해 피해 문제와 마늘 주산지로서의 고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되었으며 농축산물 유통망 확보에도 주력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역량을 다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고흥군 농·축협에서 고흥군교육발전기금으로 일천만원을 기탁하여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였다.

이번 농정업무 협의회에 참여한 농 · 축협장들은 “고흥군과 농협간의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흥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고흥군 농정 업무 협의회를 통하여 고흥군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과 농협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상생 협력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택영 기자

여수시, 전남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다음달 1일 개소

학동 소재 212㎡ 면적, 실내 휴식공간·여성휴게실·회의실·화장실 갖춰

여수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고 4월 1일 문을 연다.

시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쉼터는 학동 선소상가 내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지사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하며, 현재 개소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212㎡(64평) 면적에 실내 휴식공간, 여성휴게실, 회의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충전과 인터넷 검색 같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불특정한 대기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업무 및 휴게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예술창고 오는 22일 개관

미디어 영상실·문화쉼터·전시실 등 다양한 공간 운영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구 광양역 앞 폐창고를 2018년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광양예술창고 개관과 운영을 앞두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 22일 전남도립미술관과 개관식을 병행할 예정이며 23일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명절 당일이다.

광양예술창고는 2개 동(미디어A, 소교동B)으로 지어졌고 폐창고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 내부 천장을 마감하지 않고 목재 트러스 구조를 유지했다. 미디어A 주요시설에는 미디어 영상실과 전시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미디어 영상실에는 전국 최대의 영상 길이(둘레 56m, 높이 4m, 상영면적 226㎡)를 송출할 수 있는 8K 빔프로젝터 10대가 설치되어 있다.

영상 콘텐츠로는 광양시 관광명소 풍경 뒤에, 전이수 작가(SBS 영재발굴단 출연)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콜라보한 자료를 배치하며 10여 분의 실감 나는 영상을 제작해 시민의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실에는 광양 출신으로 한국 기록사진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故 이경모 사진가의 아카이브가 조성되어 있다.

이경모 사진가의 사진자료를 디지털화해 대형 터치스크린에 담았고, 생전 간직했던 카메라는 유리 전시장에 담아 이경모 사진가의 생전 작품과 카메라를 생생히 관람할 수 있다.

소교동B 주요시설로는 문화쉼터, 다목적실, 어린이 다락방이 있다.

문화쉼터는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푸드트럭을 모티브로 한 주방공간과 전이수 작가의 미술작품이 그려진 벽화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목적실에서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2층 어린이 다락방은 동화책 등을 비치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광양=심종섭 기자

보성군, 2021~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 개최

보성군은 지난 15일 2021~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심의를 개최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관내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1년도 사업으로는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15종 186건 31억여 원의 사업이 의결됐고, 2022년도 사업은 21종 56건 676억여 원이다. 이 중 군 자체사업인 소형어선 인양기 등 3종 8억 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 초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6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